

논증의 지지구조 연구

홍경남*

주제분류 서양철학, 논리학

주요어 논증 구조, 결합, 수렴, 관련성, 지지도

요약문

논증의 지지구조 분석을 위한 결합/수렴 구분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지지도 기준과 관련성 기준이 그것이다. 결합/수렴 구분이 논증 분석의 도구로서 필요가 있고 적절한 것이라면 그 구분 기준은 가능한 평가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결합’이나 ‘수렴’ 개념과 관련한 우리의 직관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지지도 기준에 비해 관련성 기준이 해당 요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중앙대학교

1. 들어가는 말

1) 결합/수렴의 구분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에는 크게 ‘결합’과 ‘수렴’이 있다. 일반적으로 결합에 의한 지지 방식은 전제들이 서로 의존하여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을 가리키고, 수렴에 의한 지지 방식은 전제들이 서로 의존하지 않고 각기 독자적으로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연역적 함축과 귀납적 일반화에 의거한 논증이 결합에 의한 지지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각기 충분하진 않지만 독자적으로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는 논증이 수렴에 의한 지지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지지방식이 있다는 것은 논리학 입문서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구분을 이뤄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거나 합의된 답변은 없는 것 같다. 논리 입문서의 ‘논리 구조’ 란에서 소개되고 있는 ‘수렴’에 의한 지지방식의 핵심적인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 전제들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에서 “서로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결합’에 의한 지지방식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제들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에서 “서로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렴에서 사용되는 ‘독립성’과 결합에서 사용되는 ‘의존성’의 개념은 일상에서도 그 뜻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명료한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의 것이 독립적이면서 의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예컨대 대학생 아들은 의지의 측면에선 부모에게서 독립적일 수 있지만 학비의 측면에선 부모에게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명료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논증의 지지방식 구분은 애초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와 직면하여 합당한 결합/수렴의 구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 첫째, 우리는

전제들이 결론에다 전하고 있는 지지도를 구상해서 어느 하나의 전제가 제거되거나 해당 전제가 거짓일 경우 전제들 전체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가 어느 정도 내지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결합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토마스(Stephen N. Thomas)와 야날(Robert J. Yanal)의 기준이다. 둘째, 어느 하나의 전제가 제거되거나 해당 전제가 거짓일 경우 다른 전제와 결론이 맺는 관련성이 손상된다면 결합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렴이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프리먼(James B. Freeman)과 고비어(Trudy Govier)의 기준이다.

이 두 가지 기준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문제점 또한 담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과연 전제들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가 비교 가능하게 양적으로 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논증에서 전제들은 어쨌든 결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중 어떤 것이 제거되거나 거짓이 될 때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표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결합만이 있고 수렴에 의한 지지는 사실상 없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강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기준은 어떤 구체적인 맥락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모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강한 것인가? 결합/수렴의 분류가 순전히 논증 분석자의 주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해서 이런 의문이나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결론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 어느 한 전제가 제거되거나 거짓일 경우 다른 전제가 결론과 맺는 관련성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지지도가 약화된다면 능히 전제와 결론이 맺는 관련성도 손상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결합/수렴 구분의 기준 설정 요건

우리는 결합/수렴 구분의 기준을 검토하면서 그런 기준이 적절한 것이기 위해서 만족시켜야만 하는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단 해

당 구분은 논증 평가를 준비하는 논증 분석 단계에 필요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논증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지구조를 구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런 기준은 우리가 ‘결합’적인 지지와 ‘수렴’적인 지지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해당 개념을 가지고 당연시되는 우리의 직관들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논증 분석이 논증의 맥락적 요소인 ‘논자의 의도’와 논증 수용자의 의도를 담아내야 한다는 요구 조건과 맥을 같이 한다.

혼합물과 구분되는 화학결합물이 갖는 특유한 ‘결합’의 의미가 있다. 단순히 어떤 성분들이 모여서 ‘혼합물’을 구성하는 경우와 어떤 성분들이 서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화합물’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한다. 화합물은 결합 이전과 이후의 성격이 혼합물과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혼합물과 화합물은 그 성분들 사이의 결속력이 전혀 다르다. 혼합물은 쉽게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그 부분들의 양적인 합이 전체가 된다. 이에 비해서 화합물은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없고 단순히 그 부분들의 합이 전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혼합물은 그 일부를 분리해도 해당 부분만이 다소 변화될 뿐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화합물은 그 결합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전체가 전혀 다른 성질을 띠게 된다. 우리는 결합/수렴의 구분에서 직관적으로 이런 화합물/혼합물의 구분 점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결합적인 지지에서 한 전제를 제거한다면 해당 전제의 기여도를 넘어서서 전체 지지도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수렴적인 지지에서는 단지 해당 전제를 제거한 정도의 변화만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수렴적인 지지방식에서 전제들은 제각기 다른 전제 없이도 독립적으로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어느 한 전제를 제거한다고 해도 다른 전제들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그런 논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 지지도에서 부가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전제들이 모여서 한 결론을 지지한다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전제들이 모여

서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그 전제들 각각이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전제들은 함께 서로를 논리적으로 보조하면서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단박에 우리는 그런 지지가 결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결합/수렴 구분의 지지자들은 그런 지지가 수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온당한 결합/수렴의 구분 기준은 수렴 논증의 전제들이 서로 전혀 독립적인 것은 아니면서 함께 고려할 경우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그래서 여러 논증이 아니라 한 논증임을) 역시 담아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성 기준이 몇 가지 수정을 거친다면 지지도 기준의 장점을 담아내고 결합/수렴 구분의 설정 요건을 잘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성 기준의 수정은 ‘관련성’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명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논증 평가의 출발점으로서 우리는 우선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논증에서 전제는 일단 결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관련성 개념은 논증에 대한 예비적 평가를 위해 가장 적절한 개념일 수 있다. 이런 관련성은 논자의 의도와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기에 논자의 의도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2. 논증의 지지구조 분석에서 결합/수렴 구분의 기준

논증 사례를 재구성하여 인용할 경우 여기서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선을 그어 표기한다. 필요할 경우 실선 옆에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 번호를 괄호로 묶어 결합 구조는 전제 번호 사이에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수렴 구조는 콤마(,)를 사용하여 표기할 것이다.

1) 지지도 기준

지지도 기준에 따르면, 어느 한 전제가 제거되거나 해당 전제가 거짓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논증 지지도의 변화 정도가 결합/수렴 구분을

특징짓는다. 이런 지지도 기준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Stephen N. Thomas)는 ‘결합’에 해당하는 추론 구조의 대표 사례로서 연역적 함축, 귀납적 일반화, 가설추리 구조를 제시한다.¹⁾

(가) 연역적 함축

1.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면 마리화나를 가공하여 흡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마리화나를 가공하여 흡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마리화나를 건강상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1+2)

3.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면 마리화나를 건강상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 귀납적 일반화

1. 첫 번째 사탕을 먹은 뒤에 내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
2. 두 번째 사탕을 먹은 뒤에 내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

.....

- n-1. n-1 번째 사탕을 먹은 뒤에 내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

————— (1+2……+(n-1))

- n. 사탕을 먹은 뒤에는 내 얼굴에 발진이 생긴다.

(다) 가설추리

1. 철수의 수영복이 젖어 있다.
2. 철수의 머리칼은 엉켜 있다.

————— (1+2)

3. 철수는 수영했다.

토마스는 각각의 사례에서 그 지지구조의 특징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

1) Stephen N. Thomas, “Determining the logical structure of a reasoned discourse,” *Practical Reasoning in Natural Language*, Prentice Hall, 1997, pp. 50-52.

선 연역적 함축의 사례에서 각각의 이유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이유를 필요로 한다. 주어진 사례를 이루는 조건삼단 구조($(p \rightarrow q, q \rightarrow r) / p \rightarrow r$)에서 전제들은 각기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전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귀납적 일반화 사례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확증 사례가 비록 단독으로 그 결론을 위한 작은 지지를 제공하긴 하지만 사례들이 함께 결합하여 고려될 때 그 지지도가 훨씬 더 크다. 결론을 적절하게 지지하기 위해 각각의 이유는 다른 이유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가설추리의 사례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함께 하면서 더 큰 강도로 한 주어진 가설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한다. 해당 사례에서 “철수는 수영했다.”라는 결론적인 진술은 철수의 수영복이 젖어 있다는 증거와 철수의 머리칼이 엉켜 있다는 증거에 의해 함께 보다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

요컨대 토마스가 제시한 ‘결합’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결합 논증에서 각각의 전제는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전제들이 함께 고려될 때 지지도가 개별적으로 고려될 때 지지도보다 훨씬 더 크다.

한편 토마스는 ‘수렴’에 해당하는 추론 방식의 대표 사례로서 인간 행위와 관련된 분야(법률/정치/윤리)의 논증을 제시한다.²⁾

(라)

1. 영수는 영희에게 이미 동업하기로 약속했다.
 2. 영수가 영희와 동업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 (1, 2)
3. 영수는 영희와 동업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전제 1은 도덕적 측면을 나타내고 전제 2는 결과적이고 타산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분리 독립된 이유들은 각기 다른 독립된 이

2) Stephen N. Thomas, “Determining the logical structure of a reasoned discourse,” p. 52.

유가 거짓인 경우에도 여전히 결론을 잘 지지한다. 추론 노선들의 분리 독립은 각각의 노선을 고립시켜 다른 추론 노선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다고 해도 고립된 노선을 논박이나 파괴로부터 보호한다.

“수렴 추론이 갖는 한 중요한 특징은 각각의 분리된 이유 내지는 추론 노선이 결론에다 제공하는 지지가 다른 (분리된 독립적인) 이유 (들)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남아 있으리라는 것이다.”³⁾

야날(Robert J. Yanal)에게서 결합은 ‘의존적dependent’ 관계로 표시되고 수렴은 ‘독립적independent’ 관계로 표시된다.⁴⁾ 의존적 관계는 다시 ①전제들이 서로 논리적 틈새를 채우는 관계거나 ②동일한 노선의 사고 속에 있는 관계거나 ③한 통합된 추론의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서 세분된다. 이런 세 가지 관계들 중 어떤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제들은 서로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야날은 이 세 가지 의존적/독립적 관계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제가 결론에다 전하는) 지지도 계산 방식을 달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기준을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야날은 결합(의존적인 전제)/수렴(독립적인 전제) 구분의 기준으로서 ‘확률의 보통 합’ 개념을 끌어들인다.

“독립적인 전제들을 갖는 한 논증의 결론이 갖는 확률은 각 전제 확률의 보통 합이지만, 의존적인 전제들을 갖는 한 논증의 결론이 갖는 확률은 각 전제 확률의 보통 합이 아니다. 의존적인 전제들을 갖는 논증의 결론이 갖는 확률은 그 전제들의 보통 합을 넘어서 비약한다.”⁵⁾

3) Stephen N. Thomas, “Determining the logical structure of a reasoned discourse,” p. 53.

4) Robert J. Yanal, “Dependent and Independent Reasons,” *Informal Logic* XIII, 1991, pp. 137-138.

5) Robert J. Yanal, “Dependent and Independent Reasons,” p. 140.

야날이 말하는 확률의 보통 합이란 이런 것이다. 두 전제((P1, P2)/C)를 갖는 논증을 생각해보자. P1은 단독으로 결론 C에다 확률 0.3을 전달하고 P2는 단독으로 결론 C에다 0.4를 전달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결론 C의 확률은 P1과 P2가 함께 주어질 경우 C가 성립할 확률이다. 이제 그 확률의 보통 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1이 주어질 경우 C일 확률은 0.3이다. 이 때 C가 아닐 확률은 $0.7(=1-0.3)$ 이다. P2를 도입할 경우 P1일 경우 C가 아닐 확률 0.7 중에서 0.4 만큼($0.7 \times 0.4 = 0.28$)이 P1일 경우 C일 확률에 추가된다. 결국 결론 C의 확률은 0.58이 된다. 이렇게 전제들이 결론에 전하는 지지확률의 보통 합에 의해 결론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단지 전제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결론에다 확률을 전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제들이 단지 의존해서만 결론에다 확률을 전달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예컨대 다음 선언삼단 논증을 고려해보자.

(마)

1. 철수는 방에 있거나 마당에 있다.
2. 철수는 방에 있지 않다.

-
3. 철수는 마당에 있다.

이 선언삼단 논증 사례에서 선언문인 전제 1이 성립할 경우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 0.5이고 그 한 선언지를 부정하는 다른 전제 2가 성립할 경우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 대략 0.1이라고 할 경우 그 확률들의 보통 합은 $0.5 + (0.5 \times 0.1) = 0.55$ 가 되지만 해당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기 때문에 결론의 실제 확률은 1.0이다. 그래서 전제가 서로 의존하여 결론을 지지하는 결합 논증에는 보통 합의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귀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00개의 구슬이 담겨 있는 단지에서 무작위로 꺼낸 10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 색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단지의 구슬

이 모두 겹치는 일반적 주장이 옳다는 데 비교적 높은 확률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 합의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0.01+(0.99 \times 0.01 = 0.0099)+\dots = 0.0956$ 으로서 대략 0.1의 확률만을 결론에다 부여하게 된다. 야날이 보기에 귀납에서는 축적되는 증거의 어떤 지점에서 그 입증도가 부분들의 합계를 넘어서기에 보통 합의 방식을 귀납에 적용해선 안 된다.

이런 야날의 ‘확률의 보통 합’ 기준은 토마스 기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의 변화 여부가 바로 결합/수렴 구분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날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일반화하여 ‘지지도 변화의 급격함’ 여부를 논증의 지지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고 있다.

(바)

1. 영희는 대략 도서관 방향으로 가는 듯이 보였다.
2. 영희는 시험이 임박해 있다.

3. 영희는 도서관에 있다.

야날에 따르면, 이 논증의 지지방식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다.⁶⁾ 시험 논증에 주어진 전체 증거는 전제 2가 유입될 때 ‘비약’적으로 증가하는가? 그렇다면 해당 논증은 결합이다. 그 증거는 다만 점차로 증가하는가? 그렇다면 해당 논증은 수렴이다. 전제 1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바로 전제 1에 의한 증거만큼 결론의 신뢰성이 감소되는가? 그렇다면 해당 논증은 수렴이다. 아니면 전제 1에 의한 증거보다 더한 크기로 감소되는가? 그렇다면 해당 논증은 결합이다. 이 두 가지 시험 모두에서 (바) 논증은 결합으로 드러난다.

6) Robert J. Yanal, “Dependent and Independent Reasons,” p. 142.

2) 관련성 기준

프리맨(James B. Freeman)에게 ‘관련성’은 직관적인 개념이다.⁷⁾ 만약 우리가 한 진술이 다른 진술을 위한 이유를 제공한다거나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논리적 분석과 평가에 적합한 의미에서 관련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이유나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것의 성립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제공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고비어(Trudy Govier)는 이런 직관적 이해를 넘어서 관련성 개념을 다음처럼 규정한다. 한 진술 A가 참이 됨이 B가 참이 되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바로 그 경우에 A는 B와 긍정적인 관련성을 맺는다. 한 진술 A가 참이 됨이 B가 거짓이 되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바로 그 경우에 A는 B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맺는다. 한 진술이 논증의 전제로서 제시된다면 그것은 해당 논증의 결론이 참이 되기 위한 증거로서 의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증 분석과 평가의 맥락에서 고비어의 관련성은 긍정적인 관련성을 의미할 것이다.

관련성 기준의 주장자들은 논증의 전제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결론과 관련을 맺는’ 하나하나의 이유를 구성하는지 ‘서로 함께 결론과 관련을 맺는’ 한 이유를 구성하는지에 의거하여 수렴/결합을 구분한다. 다음은 여러 독립적인 전제들이 각기 독립적인 이유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수렴 논증 사례로서 프리맨이 제시한 것이다.⁸⁾

(사)

1. 사형이 일급 살인과 같은 범죄의 효과적인 억제책이 된다는 증거란 없다.
2. 사형이 피살자의 생명을 돌려놓을 수는 없다.

7) James B. Freeman, “Argument Structure and Disciplinary Perspective,” *Argumentation* 15, 2001, p. 413.

8) James B. Freeman, “Argument Structure and Disciplinary Perspective,” pp. 403-404.

3. 사형이 잘못 구형되었을 경우 그런 잘못을 시정할 길이란 없다.
————— (1, 2, 3)
4. 사형은 사법상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례를 보면 여러 이유들이 각기 독립적인 이유가 되면서 함께 모여 더 강하게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형에 대해 그것이 알려진 효력이 없는 제재 조치라거나 그것이 희생자가 입은 부당한 손실을 회복시켜 줄 수 없다고 서술함은 각각 단독으로 그 제재 조치가 사법적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어떤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양자를 함께 서술함은 사형이 사법적 선택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할 보다 강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나머지 전제에 관해서도 같은 점을 되풀이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전제 모두로부터의 논증은 해당 전제들 중 하나나 그 이상이 누락되어 구성되는 논증보다 더 강하다. 물론 거꾸로 전제들 중 하나나 그 이상이 누락되어 구성되는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약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지도가 약하다고 해서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형이 일급 살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위 논증의 첫 번째 전제를 거짓으로 만든다. 물론 전제 모두가 참이라면 더 강하게 결론을 지지하겠지만 이렇게 그 중 한 전제의 거짓이 전체 논증을 망치지는 못한다. 남은 전제들이 여전히 결론을 잘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리먼이 보기에 다음 논증은 직관적으로 결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⁹⁾

(아)

1. 사형은 잔인성이 국가가 택할 수 있는 한 선택지임을 가리킨다.
2. 잔인성은 결코 국가의 선택지가 되어선 안 된다.

9) James B. Freeman, "Argument Structure and Disciplinary Perspective," p. 405.

————— (1+2)

3. 사형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직관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 논증의 결론을 옹호하여 논증하는 이가 그 첫 번째 전제만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보자. 명백히 그 논증은 틈새를 가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잔인성이 국가가 택할 한 선택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왜 그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하여 두 번째 전제가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논증을 이루는 두 전제들은 함께 그 결론과 연관된 한 이유를 구성하기에 해당 논증의 지지구조는 결합인 것이다. 이 방식에서 어느 한 전제의 제거나 거짓은 전체 논증을 파괴한다. 확실히 잔인하지 않은 사형 방식이 있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잔인성을 선택할 이유가 확실히 있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전제는 사형에 반대할 충분한 이유를 주지 못할 것이다. 즉 어느 한 전제의 제거나 거짓은 나머지 전제가 결론과 맺는 관련성을 손상시킨다.

앞서 이렇게 지적했다. 수렴 논증에서 각각의 전제는 결론과 ‘독립적으로’ 관련을 맺지만 결합 논증에서는 전제들이 단지 ‘함께’ 관련이 있는 이유를 구성한다. 수렴 논증에서 각각의 전제는 결론을 위한 증거를 구성한다. 한 전제의 상실은 결론과 유관한 다른 전제의 이유 자격 내지는 증거 자격의 가능성을 박탈하지 않는다. 반면에 결합 논증에서 전제들은 단지 함께 그 결론과 관련을 맺는 한 이유를 구성한다. 따라서 어느 한 전제의 상실이나 거짓은 나머지 전제들이 결론과 맺는 유관한 이유 자격을 박탈한다. 즉 한 전제의 상실은 그와 연관된 전체 이유를 취소시킨다.

다음은 전제들이 함께 결론과 관련을 맺을 때만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결합 논증의 대표 사례로서 고비어가 인용한 것이다.¹⁰⁾

10) Trudy Govier,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Wadsworth, 2005, pp. 40-43.

(자)

1. 시민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는 심각한 도덕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집속탄은 시민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알파 군대는 그 가장 최근의 군사 행동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

————— (1+2+3)

4. 알파 군대는 심각한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논증은 그 모든 세 개 전제들의 결합을 요구한다. 이 논증을 평가할 때 이렇게 결합적인 지지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전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거절한다면 사실상 그 어떤 전제도 결론에다 아무 지지도 제공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있는 셈이다. 전제 1을 거절한다면 나머지 전제 2와 3은 그 군대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지 못한다. 전제 2를 거절하거나 전제 3을 거절한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와 달리 다음은 각각의 전제가 다른 전제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론과 관련을 맺으며 결론을 지지하는 수렴 논증의 대표 사례로서 고비어가 인용한 것이다.

(차)

1. 아파트에 성인만을 들이고 아이를 들이지 않는 것은 아이 가진 사랑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다.

2. 아파트에 성인만을 들이고 아이를 들이지 않는 것은 아이 없는 독신들이 쾌락적이고 무책임하고 과도하게 이기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게끔 조장한다.

————— (1, 2)

3. 아파트에 아이를 들이지 않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이 사례 논증의 전제 1이나 2는 바로 그 홀로 결론을 위한 어떤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홀로 결론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이유를 함께 가짐은 해당 논증을 강화한다.

요컨대 프리맨과 고비어의 관련성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수렴 논증의 전제들은 제각기 결론과 관련을 맺지만 결합 논증의 전제들은 단지 함께 해서만 결론과 관련을 맺는다. 2)수렴 논증의 전제들 중 어느 것이든 제거하거나 거짓일 경우 다른 전제가 결론과 맺는 관련성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결합 논증에서는 그런 관련성이 깨져 버린다.

3. 결합/수렴 구분 기준의 문제들

1) 지지도 기준의 문제

결합 논증의 전제들은 서로 결합하여 그 결론을 지지하지만 수렴 논증의 전제들은 각기 결론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지지한다. 여기서 전제들이 결합한다는 것은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콘웨이(David A. Conway)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행위자도 아닌 것들이 서로 도와서 뭔가를 지지할 수 있는가?¹¹⁾ 야날의 정의를 도입하여 전제들이 같은 사고 노선에 있고 서로의 논리적 틈새를 채운다는 것을 그것이 뜻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 콘웨이는 다시 이렇게 지적한다. 일단 야날이 언급하는 ‘같은 사고 노선’이 무엇인지는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 돕는다’는 것 만큼이나 모호하다. 더욱이 ‘논리적 틈새’가 있는 전제들만으로 이뤄져 그런 전제들이 서로의 논리적 틈새를 채워 결론을 충분히 지지하는 것이 결합 논증이라고 한다면 어떤 논증이 수렴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논리적 틈새가 있어서 전제들이 아무리 함께 모인다고 해도 결론을 지지하기에 부족한 나쁜 논증들만이 남을 것이다. 좋은 논증은 결합이고 나쁜 논증은 수렴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무

11) David A. Conway, “On the Distinction between Convergent and Linked Arguments,” *Informal Logic* XIII, 1991, p. 146.

엇보다도 논증의 평가 범주가 아니라 논증 구조 분석의 분류 범주임을 의도하는 결합/수렴의 구분이 왜 필요한 것인가?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토마스는 귀납적 일반화 논증을 결합으로 분류하며 ‘전제 사례들이 함께 결합될 때 지지 강도가 훨씬 더 크기에’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결합인 귀납적 일반화 논증의 전제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결론을 지지하기에 전제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결론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수렴임을 특징지어주지 못한다. 함께 고려한 전제들에 의해 주어지는 지지 정도가 개별적으로 고려한 전제들에 의해 주어진 지지 정도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수렴인 것이 된다. ‘결합에서 전제들을 함께 고려할 때 지지도가 보통 합에 의한 지지도를 넘어서 비약한다.’라고 주장하는 야날의 주장 역시 이런 토마스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토마스나 야날의 지지도 기준은 앞서 지적한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것인가’ 하는 모호성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야날이 시도했던 방식을 따를 경우 논증 일반에 대해서 지지도 비교를 위한 정량적인 계산이 일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한 바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일상적인 논증이 담고 있는 다양하고 애매모호한 맥락적 요소를 고려해보면 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설혹 그런 정량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도대체 왜 결합/수렴의 분류가 논증 분석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것이다. 결합/수렴의 분류는 논증 분석의 도구로서 제안된 것이기에 그것이 이미 논증 평가를 전제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해당 분류가 논증 평가의 준비 단계인 논증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관련성 기준의 문제

앞서 보았듯이 고버어는 수렴에서 “전제들이 개별적으로 내지는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한다.”라는 기준의 의미를 ‘관련성’ 개념에 의거해서 제시했다. 결론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맺는 전제들은 결론을 수렴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결합할 때만 결론과 관련을 맺게 되는 전제들은 결론을 결합적으로 지지한다. 이에 대해 콘웨이는 다음 반례를 제시한다.¹²⁾

(카)

1. 나뉰은 알을 낳는다.
 2. 나뉰은 젓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
-

3. 나뉰은 오리너구리다.

(타)

1. 하비는 중세철학의 전문가다.
 2. 하비는 현대양상논리의 전문가다.
-

3. 하비는 노던 대학의 철학교수직에 적합한 최선의 후보자다.

(파)

1. 바람이 세지고 있다.
 2. 구름이 짙게 끼고 있다.
 3. 추워지고 있다.
-

4. 동트기 전에 눈이 올 것이다.

콘웨이에 따르면, 위 (카)-(타) 논증에서 각각의 전제는 분명 그 결론과 제각기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고비어의 기준에서 해당 논증은 수렴적이다. 그런데 전제 1과 2를 각기 홀로 고려할 경우 그 각각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는 극히 낮지만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그 낮은 지지도를 합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게 결론을 지지한다. 예컨대 알을 낳는 동물이나 젓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은 오리너구리 말고도

12) David A. Conway, "On the Distinction between Convergent and Linked Arguments," p. 148.

무수하기에 그 각각이 홀로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도는 극히 낮다. 하지만 알을 낳는 동물 중에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은 드물기에 그 둘이 함께 하면 아주 높은 정도로 결론을 뒷받침한다. 또한 교수 적격 여부와 관련하여 중세철학 분야와 현대양상논리 분야 각각의 전문가는 많을 수 있지만 그 두 분야 모두의 전문가는 극히 소수일 수 있고 노던 대학이 바로 그런 이를 필요로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두 전제를 따로 각기 고려해서 극히 낮은 지지도를 구하고 그것을 합친 것보다 그 두 전제를 함께 고려할 경우 훨씬 높은 정도로 결론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 두 논증은 우리가 보기에 직관적으로 결합이다. 그런데 고비어의 기준은 바로 이런 우리의 직관을 부정하고 있다. 보다 일상적인 사례인 (파) 논증에서도 전제들은 각기 ‘눈이 올 것이다.’라는 결론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지지 정도는 극히 미소하다. 이런 개별적인 지지도를 단순히 합칠 경우 1-3의 전제를 결합하여 고려하는 경우의 높은 지지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콘웨이에 따르면, 이는 타당한 연역 논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의 선언삼단 사례를 다시 인용해보자.

(마)

1. 철수는 방에 있거나 마당에 있다.
2. 철수는 방에 있지 않다.

3. 철수는 마당에 있다.

해당 논증에서 선언문인 1번 전제는 독립적으로 고려할 때 분명 결론과 관련이 있다(50%의 지지도). 그리고 한 선택지를 부정하는 2번 전제에서 뭔가가 어떤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높이기엔 사소할 수는 있지만 역시 결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따로 고려하여 산출된 지지도를 아무리 합쳐 보아도 그 둘을 결합하여 고려할 때

산출되는 타당성의 지지도 100%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직관적으로 결합이지만 관련성 기준에 따르면 수렴으로 잘못 간주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연역 논증의 사례는 보로베이(Mark Vorbej)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로베이는 두 전제를 갖는 연역 논증에서 “전제 중 어느 것이든 제거하거나 어느 것이든 거짓이어도 다른 전제가 결론과 유관한 경우”를 관련성 기준에 대한 대표적인 반례로서 제시한다.¹³⁾

(하)

1. 주사위를 굴러 1, 2, 3, 4, 5 중 하나가 나온다면 내가 이길 것이다.

2. 주사위를 굴러 6이 나온다면 내가 이길 것이다.

3. 내가 이길 것이다.

보로베이가 보기에 (하) 논증은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서 직관적으로 ‘결합’의 지지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논증의 전제들은 제각기 홀로 결론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관련성 기준에 따르면 해당 논증은 ‘수렴’이다. 따라서 관련성 기준은 문제가 있다.

4. 결합/수렴 구분 기준의 문제 해결하기

1) 관련성 개념의 명료화

고비어는 콘웨이나 보로베이의 반례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반대가 결합/수렴 구분을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⁴⁾ 고비어에 따르면, 콘웨이의 반례는 수렴논증을 평가하는 일에서 전

13) Mark Vorbej, “Linked Arguments and the Validity Requirement,” *Argumentation* 9, 1995, pp. 293-295 참조.

14) Trudy Govier,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The Philosophy of Argument*, Vale Press, 1999, pp. 172-177.

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것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분명 수렴논증의 평가에서 전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고비어는 강조한다. 수렴 논증에서 각각의 전제는 다른 전제들이 없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결론을 지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론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맺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론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여타 전제들과 관련성을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은 무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렴 논증의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무수한 관련성 가운데서 ‘논리적인 결론 지지의 측면’에서 맺는 관련성이다. 수렴 논증의 평가에서 전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고려가 바로 ‘결합’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비어가 보기에 ‘결합’적인 지지 여부는 논리적인 결론 지지의 측면에서 맺는 관련성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만 한다.

“물론 수렴논증에서 전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결국 전제들은 논자에 의해 동일한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을 추론해 내기 위해서 전제들을 결합해야만 한다는 강한 논리적 의미에서 우리가 전제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¹⁵⁾

하지만 이런 고비어의 응수는 아직 모호하다. ‘결합을 위한 강한 논리적 의미’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호함을 명료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전제가 결론을 ‘논리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적합한 ‘지지도’에 관해 주의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열거에 의한 귀납에서 각각의 전제는 미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을 지지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귀납의 전제는 ‘다른 전제들이 없이는 결론을 지지할 수 없는’ 전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열거에 의한

15) Trudy Govier,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p. 174.

귀납은 모두 수렴 논증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도 고비어는 열거에 의한 귀납이 결합에 속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고비어가 생각하는 ‘논리적 의미에서의 결론 지지’가 ‘미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이 되기보다는 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도의 지지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비어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련성 중에는 ‘미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을 지지’하는 관련성도 무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전제가 결론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지지’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지여야 하고 그것은 적어도 지지하는 것이 참이라면 지지되는 것이 거짓이 되기보다는 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도의 지지다. 고비어 스스로 잘못된 유추의 오류를 무관성의 오류로 분류하면서 그 이유로서 해당 ‘유사성’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¹⁶⁾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고비어의 관련성 기준은 이미 암암리에 지지도 기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지도 기준의 주창자인 토마스는 논증 지지도를 다섯 가지(영nil, 약weak, 적당moderate, 강strong, 연역적으로 타당deductively valid)로 나눈다.¹⁷⁾ 이 중 고비어의 관련성이 담고 있는 지지도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이 되기보다는 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적당moderate’¹⁸⁾으로서 이는 일상적으로 “주어진 이유가 결정적으로 내지는 강하게 결론을 입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결론을 위한 중요한 내지는 좋은 지지를 제공하는”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 점에서 관련성 기준이 지지도 기준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관련성’은 ‘적당한 지지도’를 요구한다. 예컨대 단지 ‘구름이 껴 있다.’라는 전제만 가지고는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결론을 적당하게 지지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전제들은

16) Trudy Govier,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pp. 367, 379.

17) Stephen N. Thomas, “What is Good Reasoning,” *Practical Reasoning in Natural Language*, pp. 115-142.

18) Stephen N. Thomas, “What is Good Reasoning,” p 138.

결합해서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가설추리에 적용된다. 그래서 오리너구리, 철학교수 사례 등이 전형적으로 수렴 구조를 나타낸다고 판정하고 있다면 그런 판정은 잘못되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적당한 지지도가 있음을 뜻하고 해당 경우에서 각각의 이유들은 독자적으로는 적당하지 못한 지지도를 보이기에 함께 결합해서만 결론과 긍정적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렴에서 홀로 결론을 위한 어떤 이유를 제공하는 전제들은 각기 적당한 지지도를 보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관련성 기준이 지지도 기준의 요소를 포함하게끔 정의될 경우 그것이 지지도 기준에 대해 제기되는 반대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이 되기보다는 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도의 지지도’ 내지는 ‘적당한 지지도’라는 개념은 지지도 기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아주 큰 영향력’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모호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논증 평가자로서 최소한 한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거짓이 되기보다는 참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와 결론 간에 유지되는 논증 지지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앎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앎은 아주 직관적인 것이기에 논증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의 요소가 아니라 다만 논증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예비적인 평가의 요소일 뿐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지도 기준에 대한 반대는 이런 통합적인 기준 설정 요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 관련성 개념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다리만 놓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실험 사례¹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아무리 관련이 없어 보여도 모든 것이 쉽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논증의 전제와 결론이 맺는 관련성에 대해서 그 적절성의 자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그저 그렇고 그런 온전치 못한 의미의

19) 정재승, 『과학 콘서트』, 어크로스, 2011, 18-32쪽.

관련성이 아니라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전제를 수용할 수 있다면 결론도 수용할 수 있을 성 싶다는 온전한 의미의 관련성이다. 우리는 전제가 결론과 맺는 ‘적절한 의미’의 관련성에다 그 지지의 정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갓된 지지는 그런 관련성이 아니고 온전한 ‘적당한 지지’만이 관련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는 토마스 등이 기준으로 제시했던 ‘지지도 크기의 변화’라는 아이디어가 앞서 지적했던 결합이나 수렴 개념과 관련하여 갖는 직관적인 의미를 잘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제와 결론이 맺는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또한 논자의 의도를 포함하는 논증의 맥락을 잘 살펴서 이뤄낼 필요가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논증 사례가 아닌 자연스레 주어진 논증들은 대개 논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을 암암리에 담고 있게 마련이다. 이는 결합/수렴의 구분과 관련해서도 논자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성 기준에 반대하여 인용된 반례들은 반대를 위해 일부러 만든 사례인 경우가 많다.²⁰⁾ 우리는 우선 해당 반례들이 실질적인 반례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맥락에서 가능한 논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구성한 연후에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 고비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단지 고안된 사례들만을 사용함으로써 콘웨이는 그 자신과 그의 독자들에게서 사실적이고 자연스런 산문이 갖는 풍부성과 ‘더욱이’, ‘나아가’, ‘그리고 다른 이유로서’, ‘세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은 적절한 신호 내지 실마리 내지 단서들을 박탈해버린다. 그런 표현들은 흔히 어떻게 한 논자가 자신의 여러 분리된 전제들을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축적하는 것으로서 바라보는지에 관한 실마리들을 제공하곤 한다. 모든 그런 실마리들이 콘웨이가 논의하는 사례들에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은 결합하는 지지 패턴과 수렴하는 지지 패턴을 구분하는 데 있을 수도 있는 어떤 문제를 악화시켜 버린다. 이런 고안된 사례들이 갖는 경직된 성격은 우리에게 그 구분과 연관된 정보를 박탈했다. 흔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에 있곤 하는 정보가 결여된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콘웨이는 그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향된 사례들을 제공했다.” Trudy Govier,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p. 173.

2) 반례에 대한 대응 - 지지도 요건과 논증의 맥락 요건의 적용

이렇게 관련성 개념을 수정할 경우 앞서 콘웨이의 반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예컨대 ‘바람이 세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눈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적당하게(아닐 것보다는 그럴 것 같게) 참이 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바람이 세지면서도 눈이 오지 않을 무수한 가능성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또한 ‘어떤 것이 알을 낳는다.’라고 해서 적당하게 ‘그것이 오리너구리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어떤 것이 젓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에서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해당 지지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나딘이 오리너구리라고 논증하는 오리너구리 논증과 눈이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 논증은 모두 결합이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철학 교수 사례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노던 대학 교가 요구하는 자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두 종류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배경지식이 전제로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고 그 경우 해당 논증은 ‘결합’이 될 것이다. 이 논증사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적어도 어떤 철학 분야의 학위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해당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교수 적격이라는 주장을 적당하게(아닐 것보다는 그럴 것 같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논증은 수렴이다.

이렇게 볼 때 토마스에서 가설추리로 분류된 것들은 대개 결합 논증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비어는 가설추리를 수렴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녀가 사실 마음에 품고 있는 가설추리는 ‘최선의 설명에 의한 추론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에서 최선일 수 있는 가설의 선택이나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²¹⁾ 가설 선택이나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의

21) “어떤 가추 논증에서든 주요한 전제는 옹호되는 가설이나 이론이 주어진 사실이나 사실들의 집합에 관한 ‘최선의 설명’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런 주장은 하부 논증에서 지지를 요구한다. 한 가설이나 이론의 설명적 장점들과 관련한 다양

이유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 각각은 적당하게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해당 가설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앞의 두 사례에서처럼 단순히 가설 생성의 의미에서 가설추리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단서에서도 어떤 가설을 추리할 수 있고 그런 단서는 해당 가설을 추론하기 위한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추리는 결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수정된 관련성 기준은 콘웨이가 제시한 연역 논증의 반례 역시 우리의 직관에 맞게 결합으로 잘 분류할 수 있다. ‘철수가 마당에 있다’고 논증하는 선언삼단 사례에서 선언문인 1번 전제는 50%의 지지도(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에 적당하지 못한)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에 독자적으로 결론과 관련을 맺지 못하고 2번 전제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도를 갖고 있기에 역시 홀로 결론과 관련을 맺지 못한다. 하지만 1번과 2번 전제가 함께 고려될 때 그것은 결론을 100% 확실하게 지지한다. 따라서 해당 논증은 결합이다.

보로베이가 제시한 연역 논증 반례 역시도 수정된 관련성 기준에 의해서 ‘결합’으로 잘 분류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된 요건은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 판단이 논자의 의도를 포함하는 맥락적 요소를 제대로 담아낸 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로베이의 반례는 순전히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논증으로서 실제의 논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 논증 사례에서 주사위를 굴려 어느 것이든 나온다면 이길 것임이 당연한 경우 나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기에 입증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승패가 있는 주사위 게임이 성립하는 이유는 ‘패’

한 구분되고 독립적인 요인들이 있을 경우(기존 이론과의 정합성, 단순성, 다른 연구를 위한 풍부성, 신빙성, 폭) 그런 논증은 본성상 수렴적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rudy Govier, “Conductive Arguments: Overview of the Symposium,” (eds) J. Anthony Blair & Ralph H. Johnson,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Individual author and College Publications, 2011, pp. 263-264.

의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 논증에서 특히 1은 2의 거짓을 가정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결론에다 소정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승리 게임의 규칙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런 가정을 부인하는 것은 게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해당 논증 게임을 무화시켜 버린다.

콘웨이와 보로베이는 일단 연역적 함축 관계가 결합 관계라는 가정 내지 직관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한 전제가 제거되거나 거짓일 때 다른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있어 보이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반례를 고비어의 관련성 기준에 대한 반대로서 제시한다. 하지만 고비어가 주장하는 관련성이 다만 객관적인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자가 의도한 의미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런 반례는 모두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논증을 분석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자의 의도 내지는 구상에 의존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유념해보면 논자의 의도가 ‘관련성’ 판단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논증 평가에서 결합/수립 구분의 의의

결합/수립 구분이 평가를 가정하고 있고 이렇게 평가를 가정하는 구분은 논증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일반적인 비판에 대해서 고비어는 두 가지로 응수한다. 첫째,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일은 다만 ‘최소한’의 평가를 가정할 뿐이다. 둘째, 그런 평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논증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이뤄지는 해석과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인 평가일 뿐이다.²²⁾ 이는 고비어에서 논증 구조의 분석과 평가가 어느 정도 상보적임을 의미한다. 분석과 평가의 경계 지점에서 그 둘은 교묘하게 엉켜 있다. 즉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는 그렇게 무 자르듯 분명하게 나눌 수 없는 긴밀하게 얽혀 있는 덩불과 같은 꼴을 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논증 분석/평가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2) Trudy Govier,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p. 175.

본격적인 논증 평가에 앞선 예비적인 평가에서 우리는 해당 추론이 연역의 형식, 귀납의 형식, 유비의 형식 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고 바로 해당 논증을 결합으로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관련성의 정도를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성 기준의 시험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치러질 수 있다. 즉 결합/수렴의 분류는 주어진 논증에서 어느 하나의 전제가 거짓이거나 제거된다고 상정할 경우 다른 전제들이 결론과 맺고 있는 애초의 관련성이 깨지는지 검사하여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검사는 논증 분석시마다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수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만 실시되는 것이다. 해당 논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 그 논증을 바로 그 형식이 속하는 분류 범주에 귀속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다.

해당 논증이 결합적 지지관계를 맺고 있어서 연역으로 분류되는지 연역적 함축의 지지관계를 맺고 있어서 결합으로 분류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합과 연역은 다른 수준의 분류 체계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연역이라고 판정되는 논증이 수렴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논자가 그렇게 의도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재구성된 논증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기준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통해 해당 논증은 결합으로 다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과 평가는 서로 어울리고 얽혀 상보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는 논증 분석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한 내지는 필요한 모든 평가를 통과한 분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평가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거칠고 투박한 분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거칠고 투박한 분석에 따른 결과가 바로 결합/수렴의 구분이다. 어떤 논증이 수렴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각 전제들이 결론과 맺고 있는 관계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결합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결합된 전제들의 무리가 함께 결론과 맺고 있는 관계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분석은 평가에 기여한다. 그런 거칠고 투박한 분석을 위해 결합/수렴

의 시험은 말 그대로 포괄적이고 단순하고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최적의 후보자는 전제들이 각기 적당한 지지도를 가지고 결론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런 수정된 관련성 개념은 충분히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껴안을 수 있다.

5. 결론

결합/수렴 구분의 기준을 크게 지지도 기준과 관련성 기준으로 나눠 그 공과를 살펴보았다. 지지도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실질적인 결합/수렴 구분의 기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관련성 기준은 지지도 기준이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직관을 제대로 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도 기준의 강점을 포섭하고 논증의 맥락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수정된 관련성 기준은 충분히 결합/수렴 구분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논증 분석에서 결합/수렴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논증 지지구조의 모습을 드러내어 복잡한 논증 구조에서 보조 논증을 포함하는 전체 논증 구조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평가의 순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합/수렴의 구분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고려해야 하는지 따로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평가 문제를 세분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보조논증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 구분법은 유용하다. 논증 평가시 해당 논증이 결합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국소적인 공격에 취약할 것이기에 어느 것이든 약한 전제를 공략하려고 할 것이다. 수렴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전제들 각자가 독립적인 지지를 이뤄낼 수 있기에 전제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의 깊은 평가를 하려 할 것이다. 수렴과 결합이 혼용되어 있다면 이 두 가지 전략을 병용할 것이다. 이렇게 결합/수렴 구분은 논증 분석 및 평가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 정재승, 『과학콘서트』, 어크로스, 2011.
- Conway, D. A., “On the Distinction between Convergent and Linked Arguments,” *Informal Logic* XIII, 1991, pp. 145-158.
- Freeman, J. B., “Argument Structure and Disciplinary Perspective,” *Argumentation* 15, 2001, pp. 397-423.
- Govier, T.,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The Philosophy of Argument*, Vale Press, 1999, pp. 155-180.
- Govier, T., “Conductive Arguments: Overview of the Symposium,” J. A. Blair & R. H. Johnson (eds),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Individual author and College Publications, 2011, pp. 262-276.
- Govier, T.,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Wadsworth, 2005.
- Thomas, S. N., *Practical Reasoning in Natural Language*, Prentice Hall, 1997.
- Vorobej, M., “Linked Arguments and the Validity Requirement,” *Argumentation* 9, 1995, pp. 291-304.
- Yanal, R. J., “Dependent and Independent Reasons,” *Informal Logic* XIII, 1991, pp. 137-144.

A Study on Supporting Structure of Arguments

Hong, Kyung Nam (Chung-Ang Univ.)

There are two linkage/convergence standards for analyzing the supporting structure of arguments, that is, the standards of supporting degrees and relevance. The linkage/convergence distinction should involve our intuitions related to the concepts of linkage and convergence while possibly excluding the evaluation elements so as to properly function as instrument of argument analysis. It is claimed that the relevance standard could satisfy such requirements relatively better than the supporting degrees standard.

Key words: Argument structure, Linkage, Convergence, Relevance, Supporting degrees

홍경남 e-mail: sensibilia@hanmail.net

| | |
|-------|---------------|
| 투 고 일 | 2013년 09월 03일 |
| 심 사 일 | 2013년 11월 01일 |
| 게재확정 | 2013년 11월 14일 |